

# 《초록문명론》 깊이 읽기

안건홍

환경철학의 대안으로서 생태적 전환의 관점에서 읽기  
두 측면에서 읽게 되는 새로운 읽기 방법



환경철학자이며 환경운동가인 지은이는 그의 삶이 그렇듯 그의 글도 신선한 충격을 던지곤 한다. 학회에서 약간 수줍은 듯 하면서도 환한 웃음에, 그러면서도 학문적인 논쟁에서는 여러 가지 논거를 제시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강하면서도 조리 있게 펴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 부러운 경우가 많다. 그는 환경에 관한 자기 나름의 주장을 펼칠 뿐만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그런 학자이며 운동가이다. 그는 환경문제에 관한 한 신들린 사람처럼 적극적이다. '백두대간의 기생생태주의'를 발표하여 주목을 끌고 있는 터에, 이번에는 《초록문명론》이란 책을 출판해 다시금 우리의 주목을 끌게 한다.

《초록문명론》은 모두 6부작,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문명 패러다임의 전환'은 크게 '초록문명사', '환경위기와 문명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루어져 있다. 1부에서 지은이는 생태주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문명들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마야문명 등이 생명의 기반인 생태계에 과부하를 줌으로써 스스로의 문명을 취약하게 만들거나 몰락을 자초하는 비운을 맞았는데, 현대의 산업 문명도 자연의 생명부양능력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예컨대, 지구 자연원시림의 3/4이 사라졌다든지, 화학약품을 너무 많이 살포한다든지, 생물체 내에 환경 호르몬의 양이 증대한다든지 등등 전 지구적으로 환경위기를 예고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경고한다. 이에 이런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생명중심의 문명패러다임'에서 '생명살림의 문명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2부: 산업문명과 환경위기'는 '산업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 자연이념', '산업 과학기술의 위력과 한계'로 이루어져 있다. 2부에서는 자본주의는 물론, 마르크스 사회주의도 자연을 인간의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로 간주하면서 문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산업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아울러 현대의 과학기술이 산업화의 동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환경위기를 심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자연 억압적인 현대의 과학기술을 극복하고 대안적인 새로운 과학을 모색하는 가운데, 산업문명을 넘어서는 자연 친화적인 새 문명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3부: 환경운동사'에서는 여러 가지 예들을 들면서 그 운동의 흐름을 서술하고 있다. 19세기 말에 출범한 미국의 시에라 클럽과 영국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1971년에 탄생한 그린피스에 관해, 그리고 환경론이나 환경관에서 보존(conservation)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보전(preservation)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 차이에 관해 서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에서의 주요 환경단체의 회원수 추이에 관해서도 서술하는 등 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4부: 초록문명의 대안이념'은 '자연지향적 문명의 이념, 심층생태주의', '아나키즘과 사회생태주의 이념', '페미니즘과 생태여성주의 이념'을 그 내용으로 한다. 심층생태주의(deep ecology), 사회생태주의(social ecology),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는 소위 '굽진주의의 트로이카'로 불리는 것으로, 이들

모두는 환경위기를 초래한 개념적·태도적·사회적 기원을 밝혀서 적극 폭로할 뿐 아니라, 혁명이나 문화적 패러다임 교체만이 파멸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 환경철학의 주요부분을 이루는 견해들이다.

‘5부: 초록문명의 사회와 정의’는 ‘환경정의’, ‘세계화시대의 환경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지은이는 초록문명의 사회제도란 그것이 어떤 틀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던 근간이 되는 규범으로 정의를 택해야 함을 펼친다. 자연으로부터 얻게 될 혜택과 이익의 분배뿐 아니라 환경오염과 공해로 인한 피해와 부담도 공정하게 짊어짐으로써 최대한 신중하게 자연을 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어서 환경정의의 눈으로 한 국가내에서나, 세계화가 추진되는 시대 속에서 환경 부정의를 직시하면서 이를 바로잡는데 현실적으로 기여해야 함을 주장한다.

‘6부: 새로운 초록문화와 교육’은 ‘초록문화와 환경, 사회제도’, ‘초록문명의 생태교육 원리와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6부에서는 초록문화권의 기초 단위는 구성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생태계 문화의 특성을 최대로 구현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 다른 문화와 열린 체계 속에서 서로 호혜적으로 문화적 산물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힌다. 아울러 생태적으로 건전하면서 자연적으로 지속가능한 문명의 교육으로 홀리스틱(holistic) 교육이론과 교육 과정을 제시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그의 책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우선, 그의 책은 우리 인류가 당면한 환경문제를 다루므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읽을 수 있는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그런 책이라는 점이다. 여러 나라 가운데 경제개발 속도가 매우 빨랐던 우리나라는 그 역기능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으로 환경문제를 남달리 많이 안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다. 문제가 있는 곳에 이론이 싹트듯이, 이런 상황에서 환경과 관련된 지식과 실천을 겸비해 온 지은이가 그의 안목에서 이루어야 할 새로운 문명-초록문명에 관해 저술하였다는 데 의의가 깊다.

이 책에는 곳곳에 우리에게 산뜻하면서도 강한 느낌을 주는 표현들이 나타난다. 그러면서도 이 책은 지은이가 독자에게 일관되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힘을 지녔다. 《초록문명론》이라는 책이름이 그렇고, ‘생명주입에서 생명살림의 문명패러다임으로’라는 좀 강한 느낌의 글귀가 그렇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어가면서 그가 주장하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뚜렷이 깨달으리라 여겨진다. 일반 독자들이 읽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글솜씨도 매끄럽다. 하지만 ‘엔지오’, ‘이니키즘’, ‘홀리스틱’ 등과 같은 표현은 근접한 우리말로 옮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 책은 환경철학뿐만 아니라 환경운동에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환경운동의 역사에 관해서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서술하여 그 운동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알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한편은 환경철학에 관해, 다른 한편은 환경운동사에 관해 두 측면에서 새로운 안목을 더하게 될 것이다. **한민**



《초록문명론》한민 지음 | 통권 352쪽 | 값 12,000원

이 글을 쓴 안건호는 강원도 횡성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교육철학(서울대 석사), 논리학, 과학철학(미시간주립대 M. A., 고려대 박사), 학제간 연구(미주리대 Ph.D.) 분야를 공부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한국환경철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